

UIT

News Letter

April 2007 _ 제6호

<http://uit.dongseo.ac.kr>



UIT

동서대학교 유비쿼터스 IT전문인력양성사업단

동서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부경대학교 전기제어공학부, 경남정보대학 컴퓨터정보계열

재미있는 생활 속 IT 이야기

- 한글의 세계화 가능성을 내다본다



이훈재 교수
컴퓨터정보공학부

일전에 중국 요동성에서 온 동포학생이 한글 워드프로세서와 중국어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장면을 면담처에서 유심히 지켜본 적이 있다. 동포학생은 우리한글의 읽기와 말하기는 유창하지만 한글워드프로세서의 사용법에는 익숙하지 못한 형편이었고, 한편 중국어 워드프로세서에는 상당히 숙련된 학생이었다. 그 친구가 사용법은 익숙하지 못하지만, 어떤 글로 의미전달을 하기에는 한글 워드프로세서가 아주 훨씬 쉽다고 하면서, 중국어 워드프로세서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없는지 자못 속상해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때 나는 'IT 시대에는 한글이 세계화-글로벌화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깨달았다. 우리의 한글을 중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면, 휴대통신을 좋아하는 중국인들로부터 중국어보다 더 접근이 쉬운 SMS 문자 전송방법으로 각광받게 될 것 이고, 한글의 글로벌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다.

여러분들은 한글이 중국의 문자가 될 뻔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중화민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위안스카이(袁世凱)는 1882년 임오군란 때 조선에 와서 청일전쟁 직전에 중국으로 돌아간 이른바 조선 통이였으며, 중국 사람들이 어려운 한자 때문에 문맹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고는 조선의 한글을 중국인에게 가르쳐서 글자를 배우치게 하자고 주장했다. 조선에 머물면서 한글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실제로 보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소국의 문자를 쓸 수 없다'는 중국 지배층의 반대로 뜻이 무산되었다고 한다.

한글의 우수성은 전 세계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대목이다. 세계 최대 권위로 인정받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언어대학은 과학성, 독창성, 합리성 등을 기준으로 세계 모든 문자에 대해 순위를 매긴 적이 있으며, 그 1위 자리를 당당히 한글이 차지하였다. 또한 1996년 프랑스에서 세계 언어학자들이 참석한 학술회의에서는 '한국어를 세계 공용어로 쓰면 어떻겠느냐?'는 토론이 오간 적도 있었다. 그리고, 미국 UCLA 대학 제어드 다이어먼드 교수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이며, 그 증거로 한국어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다'는 논문을 1998년 과학잡지 '디스커버' 6월호에 발표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편, 역사학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지만, 우리 민족사 연구회 등에서 밝히는 고대 역사에서 가림토 문자라는 한글 이전의 옛글이 아주 옛 시기에 이미 글로벌화 되었다는 사실에 막대한 희망을 걸어본다.

